

“색다른 어울림... 네 자매 클래식 공연 만나보세요”

지난 12월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 윤소희 첼로 독주회의 앙코르 무대는 특별했다. 네 명의 연주자가 무대에 올라 들려준 피아노, 첼로, 플루트, 성악의 어울림은 색다른 느낌을 줬다. 무엇보다 이들 네명의 음악가가 '자매'라는 사실에 관객들은 더 큰 박수를 보냈다.

“클래식에 뿌리를 두고 네 자매가 각각의 색깔과 방식으로 재능을 펼쳐나가고 있어요.”(윤소희)

한 집안에서 네명의 음악가가 나왔다. 4명의 자매가 앙상블을 이뤄 공연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그 주인공은 윤소영(피아노), 경아(플루트), 소정(성악), 소희(첼로)로 구성된 '윤 앙상블'. 이들은 지난 1996년 창단 후 25년 동안 학교, 공공기관 등의 음악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선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열고 있다.

최근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연습실에서 윤 앙상블을 만났다. 피아노를 전공하고 현재 곡성고등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재직 중인 첫째 소영씨는 “어렸을때부터 자매끼리 집에서 피아노치고 노래하고 놀았다”며 “자라는 환경이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팀을 이뤄 공연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어렸을적 아버지께서 피아노학원에 보낸 덕에 피아노를 전공하게 된 소영씨는 학원에 다녀오면 아버지께서 연습표를 만들어 피아노 연습을 시키기도 했다며 이야기를 꺼냈다. 네 자매는 교사인 아버지와 주부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어린시절 형편이 넉넉지 않아 생긴 결집과 절실함이 그들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 첼리스트로 활동중인 막내 소희씨는 “자매들끼리 모여 앙상블로 활동하지만 사실 우리는 남매다”며 “아버지 혼자 외발이로 다섯명을 키우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넷째는 아들 석중씨다. 현재 경찰로 일하고 있는 그는 학창시절 기타를 치며 노래를 하곤 했다. 핏줄은 못속인다는 말처럼 그 역시 음악에 대한 열정이 많은 청년이었다.

자매 중 유일하게 독일에서 공부한 소희씨는 “언니들은 피아노, 플루트 전공하면

피아노·플루트·성악·첼로
‘윤 앙상블’ 1996년 창단
25년간 자선음악회 등 개최
올해 여섯번 정기공연 계획

서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는데 언니들을 따라 아르바이트로 하는 공연에 따라가 첼로를 연주한 적도 많았다”며 “언니들 덕분에 유학도 다녀오고 막내의 혜택을 제대로 누렸다”고 말했다.

처음 윤 앙상블을 결성했을 때는 특별한 뜻 없이 공연을 다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수많은 무대에 함께 오르면서 자매이기 때문에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것을 알게 됐다.

소영씨는 “각자 흠어질 일도 없고 서로를 너무 잘 아니까 보완이 되기도 한다”며 “피아노, 첼로, 플루트, 노래까지 다 모여 있으니 다양한 레퍼토리를 만들 수 있어서 참 좋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세계의 심장병 환자를 돕는 밀알심장재단의 홍보대사로 활동중이며 지난 2017년에는 음반 ‘하늘 소망’을 발매해 얻은 수익금 10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앨범 발매는 현재 광양시립합창단에서 단무장 일을 하고 있는 소정씨의 아이디어였다. 제작비를 각자 부담하고 녹음을 하러 서울 작업실을 수도 없이 방문했다.

학생들에게 플루트 교습을 하고 있는 둘째 경아씨는 “우리가 남이었다면 앨범 준비를 하면서 몇번이고 다투기도 하고 기싸움도 했을텐데 가족이다보니 서로 더 이해하고 맞춰주려고 해서 그런지 한번도 싸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팀들은 음악적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거예요. 자신만의 연주 스타일이 확고하니까 잘만 견뎌왔다는 자존심 문제로 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핏줄이라 그런지 자존심 상관이 다 이야기 해도 뒤끝이 없는 편이에요. 그게 연주와 공연에 더 도움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윤 앙상블은 올해 6회의 정기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또 카페 등에서 하우스 콘서트도 열 생각이다. 특히 현재 서예작가로 활동중인 이들의 아버지가 올해 팔순을 맞이하는데 이때 전시회 오픈과 함께 음악회를 열 예정이다. 소풍 등을 활용한 연주도 기획하고 있고 한 뱃속에서 난 팀이기 때문에 태교음악을 선보이는 공연도 준비중이다.

“독주회, 후진양성 등 각각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를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요. 먼 곳이라도 연주를 한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보람입니다. 클래식 공연의 문턱을 낮춰 친근한 곡들을 선보일 예정이에요. 앞으로 더 어렵지 않고 귀에 익은 편한 곡들로 관객들과 만날 계획입니다.” (윤소희) /전은재 기자 ej6621@

“양심과 염치로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 김요수 작가 ‘탐관오리 필독서’ 펴내

“상식과 양심을 잘못 적용하면 일의 방향이 틀어지고 사회는 어지러움(혼란)에 빠진다. 도덕과 원칙을 잊속에 따라 적용하면 우리의 앞날은 일그러지고 사회는 망개진다.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가진 자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지만 못 가진 자들은 다치거나 죽는다. 못 가진 자들 가운데에서도 덜 가진 자들은 더 슬프고 짝하다.”

‘소설 폐하타령’의 김요수 작가가 에세이집 ‘탐관오리 필독서’ (아는컴퍼니)를 펴냈다.

“양심과 염치로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을 비롯해 직장인들의 애환, 정치권의 부조리한 일면 등을 특유한 날카로운 시각으로 풍자한 글을 담고 있다. 또한 모두 75편의 글 가운데는 오늘의 역사와 시사적인 내용을 촌철살인의 세평으로 풀어낸 내용도 눈에 띈다.

저자는 책 발간 계기에 대해 “상식이 두루 쓰이고, 양심이 자리 잡아야 우리 모두 즐겁다. 도덕이 울곧게 서고, 원칙이 모든 이에게 골고루 퍼져야 정의로운 사회다”라며 “그래서 우리는 살피고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표지화는 목청 민병희 씨가 담담했으며 삽화는 임부열, 민병희, 김동인 씨와 저자가 그렸다.

신중철 시인은 “‘탐관오리 필독서’가 역사의 기운에 뿌리 내리는 일과 그날의 햇살에 감사할 일과 변화에 목마른 우리 사회를 말한다”며 “책 빛깔이 아닌 옷을 탐하지 않는 식물들에게 계절이 들려주는 선물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광주 출신 김요수 작가는 산문집 ‘딱 좋아 딱 좋아’, ‘부서불랑개’ 등을 펴냈으며 현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봉준 작 ‘초흔도’



김봉준 작 ‘초흔도’

매력 가득... ACC 문화상품 11종 출시

ACC는 올해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감성을 담아낸 ACC문화상품 11종을 신규 출시한다.

국내 문화예술기관 최초 향기마케팅 시도에 이어 매력적인 향취를 담은 3종의 ‘ACC디퓨저(사진)’, ACC를 소리 내는 대로 워트 있게 표현한 이경하 작가의 ‘오오오오오오’, 미역이라는 식재료의 속성을 재미있게 풀어낸 알루 작가의 ‘알루 미역가든 유리컵’과 ‘핸드폰케이스’, ACC에서의 경험을 그림으로 담아낸 ‘민경희 작가의 엽서와 달력’ 등이다.

신경식 금속장인과 ACC의 협업으로 제작한 ‘구. 전남도청 코인 목걸이 & 뱃지’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환기하는 대표 상징 아이템이다.

모든 신규상품은 라이브러리파크 내 위치한 ACC컬처숍과 문화창조원 복합6관 앞 팝업스토어에서 구입 가능하다.



이진식 전당장 직무대리는 “1월은 새로운 마음으로 ACC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감상하고 즐기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면서 “개관 5주년이 되는 2020년에도 ACC는 시민의 선택과 감성충전소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1코노미’ → ‘1인경제’

국어원 ‘새말모임’ 대체어 마련

‘1코노미’는 ‘1인경제’로, ‘원포인트 회의’는 ‘단건 회의’로...

국립국어원은 ‘1코노미’와 ‘원포인트 회의’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각각 ‘1인 경제’와 ‘단건(집중)회의’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며 소비 활동을 하는 일 또는 그런 사람을 ‘1코노미’라고 한다. ‘일인(一人)과 경제를 뜻하는 영어 ‘이코노미’(economy)가 합쳐서 만들어졌다. 반면 특정한 안전감 상정하거나 통과시키기 위하여 짧게 개최하는 회의를 ‘원포인트 회의’라 하는데 주 정치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국어원은 이처럼 의미를 바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용어의 우리말 대체어를 찾기 위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새말모임’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5·18 40주년 ‘어둠을 드러내는 빛’ 2월 9일까지 5·18기념문화센터

5·18 40주년을 맞아 5월 광주를 소재로 한 판화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송보)은 찾아가는 미술관 기획행사로 ‘어둠을 드러내는 빛’전을 오는 2월 9일까지 5·18기념문화센터 전시장에서 개최한다. 5·18기념재단과 공동 주최·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광주시립미술관 소장작가 윤대민·평화·인권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집중 소개하는 기획전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꾸준히 판화작업을 해 온 김봉준·김진수·안한수·이상호 작가의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작품 21점을 만날 수 있다.

판화는 제작이 쉽고 대량 복제가 가능함과 동시에 단순하고 강한 이미지를 가

져, 80년대 민중미술운동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판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요 작품들을 수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판화운동 40년을 일관되게 이어오고 있는 김봉준 작가는 우리 민족적 판화와 회화의 전통양식을 토대로 인권, 민중, 민주, 평화, 생태주의를 주제로 한 판화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목판화의 선과 면이 붓의 부드러움과 유연함, 목판의 질박함, 칼맛의 명징함의 조화가 눈길을 끈다.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를 비롯해 광주목판화연구회, 광주수묵미술협회 등 80년대 민중미술운동에 가열차게 참여했던 김진수 작가는 이로 인해 해직교사가 되기도 했다. ‘광주민주화운동’ ‘시민권’ 등의 판화작품을 통해 당시의 긴장되지만 희망에 차

오르는 민중들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바다, 어부, 농민, 황폐한 마을 등을 소재로 제작한 판화작품임에도 회화적 감수성을 느끼게 하는 안한수 작가는 특실한 묘사력과 손맛의 다양한 판화작품을 보여준다. 광주목판화연구회회원으로 활동했던 작가가 1980년대 민중 중심의 미술을 은유적 방식으로 표현했던 대표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1987년 조선대학교 미술과 후배들과의 공동 작품 ‘백두의 산자락 아래 밝아오는 통일’의 새날이여’를 제작해 미술인 최초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수감되기까지 했던 이상호 작가의 ‘민중항쟁시리즈-중앙로 전투’ ‘민중항쟁시리즈-그만 좀 쫓아와라’ 등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에도 “각종 연회 행사”는
벤틀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KBO LEAGUE KOREAN AIR 아시아나항공 t'way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